みんぱくリ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

朝鮮半島の「現在」を展示する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岡田, 浩樹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2237

朝鮮半島の「現在」を展示する

岡田浩樹（甲子園大学）

今回の国立民族学博物館における新しい朝鮮半島展示には、以前の展示と比較すると一つの特徴がある。それらの相違点は朝鮮（韓国）研究だけでなく、博物館展示や文化人類学における今日的視点と問題をも示唆している。以下のコメントは、新展示のお手伝いをした者の立場から、一つの見解を述べたいと思う。ただし、この見解はあくまでも個人的なものであることをお断りしたい。

博物館は、まずは対象となる文化を展示することが第１の目的とされる。しかし、博物館の展示は、対象となる文化を「発見」したり、客観的に実在する「本物」を提示することのみにとどまらない。博物館の展示はある種のレトリカルな描写、表象的行為なのである。この意味で、今回の展示をめぐる、およびこれに伴って韓国人研究者を招いておこなわれたシンポジウムは、まさに博物館の表象的行為をめぐる議論としてとらえるべきなのであろう。この表象的行為とは、展示する側の視点、すなわち研究者のまなざしを反映するゆえに、対象についての認識論的問題を提起する。

新展示の特徴は、「伝統」ではなく「現在」に展示の一つの出発点が置かれていることである。このため、北朝鮮については資料上の制約があり、結果的に現在の韓国社会のモノに集中している。この点は将来解決されるべき問題として重要な議論ではあるものの、ここでは詳しく触れないでおくことにする。

展示の出発点が「現在」にあることは、現在のモノを展示することのみ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儒教、巫俗など、朝鮮半島の「伝統文化」あるいは「基層文化」の要素と見なされるモノについても、今回新しく収集されたモノが積極的に展示されている。ここに「伝統」や「歴史」ではなく、文化の多声性、可変性への視点がある。

民博における朝鮮半島関係の収蔵資料は、まず宮本常一らが中心になっておこなった戦前の多島海（全羅南道などの海岸、島嶼地域）収集品、あるいは慶尚南道地域を中心とした「蔚山コレクション」があり、それ自体歴史学的・民俗学的な資料価値は非常に高いものと思われる。また以前の展示品は1970年後半に祖父江孝男を中心として収集され、高度成長期以前の資料が多く収集されている。その後1980年代に桜井哲男が中心となった補充的な収集があった、結果として現在民博には祖先祭祀の祭器や

한반도의 「현재」를 전시한다

岡田浩樹 (甲子園大學)

이번의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의 새로운 한반도전시에서는, 이전의 전시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특징이 있다. 이 차이점은 한국연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박물관전시 및 문화인류학에 있어서의 시각과 문제도 시사하고 있다. 이하의 코멘트는 新전시를 도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의 견해를 서술하고 싶다. 다만, 이 견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박물관은, 우선 대상이 되는 문화를 전시하는 것이 제 1의 목표이다. 그러나 박물관의 전시는 대상이 되는 문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진짜(本物)」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박물관의 전시는 수사학적인 묘사, 표상적 행위인 것이다. 이 런 의미에서, 이번의 전시를 맞이하여 한국인 연구자를 초대하여 행한 심포지움은, 박물관의 표상적 행위를 둘러싸는 논의로써 받아들임이 마땅할 것이다. 이 표상적 행위는, 전시하는 측의 시각, 즉 연구자의 시선을 반영하므로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新전시의 특징은 전시의 한 출발점을 「전통」이 아닌 「현재」에 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제약이 있어 결과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의 물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은 장래 마땅히 해석되어야 할 문제로써 중요한 논의이긴 하자만, 여기서는 상세하고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전시의 출발점이 「현재」에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물건을 전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교, 무속 등 한반도의 「전통문화」 혹은 「기층문화」의 요소로 보여지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이 수집된 물건이 적극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즉 시각은 「전통」 및 「역사」가 아니라 문화의 다성성(多聲性), 가변성(可變性)에 있다.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한반도 관계 소장자료는 우선 宮本常一등이 중심이 되어 행한 戰前의 다도해(전라남도 등의 해안, 도서지역) 수집품 혹은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울산컬렉션」이 있고, 그 자체의 역사학적·민속학적 자료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전의 전시품은 1970년 후반에 祖父江孝男을 중심으로 하여 수집되어 고도성장기 이전의 자료가 많이 수집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 櫻井哲男이 중심이 된 보충적인 수집이 있었던 결과로서 현재 국립민족학박물관에는 조상의 기제사에 쓰이는

巫具など、年代が異なる「同じ」モノが数種類存在する。

しかし、今回の展示においては以前の展示されていたモノを利用しつつも、今回1990年代後半に収集されたモノが多く展示されている。また、従来の祖先祭祀の祭器を使った展示についても、これを祖先の位牌の側から見るという工夫だけでなく、拝礼をする子孫はいわゆる「伝統的な」祭服ではなく、背広を着ている。そこで再現されているのは、今日の忌祭である。

旧展示は、両班／常民の伝統、かつて秋葉隆が指摘した儒教文化と巫俗文化を代表とする「朝鮮社会・文化の二重性」を社会全体の構造的特徴として把握し、それをモノによって可視化していた。つまり二重構造が朝鮮社会・文化の基本的枠組みをなすという認識に基づいていた。個々のモノは、二重構造に分類され、位置づけられており、一種の記号として取り扱われていた。

一方、新しい展示においては、まず構造やシステムからモノを見るのではなく、モノという「くそリアリズム」からモノそれ自体から今日を展示しようという姿勢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新展示では巫俗、仏教、儒教、キリスト教などにコーナーによって分類されてはいる。しかしながら、相互の影響だけでなく、まずモノがあることを前提にし、これを便宜的に分類したことを示唆する箇所がある。

例えば、巫俗に近いところにある仏画は、その中に巫俗の神々がいることで、巫俗のモノと仏教のモノが明確に分類できないことを暗示するものである。この仏教の展示に関わった者としての述べれば、歴史的重層性や連続性ではなく、現在の同時代性を強調することにあった。あるモノは歴史的重層性の産物としてのみ見るのではなく、まずは個々の経歴を備えたモノであり、ある時点に存在するのである。歴史的因果関係でたやすく結べない個性的なモノたちは、整合性を備えた構造や重層的な歴史ではなく、一種の文化的多声性、可変性を提示できる可能性を秘めている。

年間述べ100万人が韓国を訪れる今日において、この文化的多声性・可変性は、観客にとってのリアリティでもあろう。この現在における同時代性、多声性・可変性の展示は、今後の方向性のひとつとなっていくと思われる。ただしモデル化された構造や歴史を展示するスタイルは観客にとって容易に理解しやすいことも事実であろう。このような意図をいかに展示に反映させるかが今後の課題であろう。また、展示されたモノが構成するのが研究者の一部がとらえたリアリズムではなく、そのモノが同時代性を示すことについての実証性もどこかで確保せねばならないと思われる。

つぎに新展示には、現在における「民族的な」モノをめぐる視点がある。現在に出

제기 및 巫具등, 연대가 상이한 「동일」물품이 여러개 있다.

그러나, 이번의 전시에서는 이전에 전시된 물건을 계속 이용하면서도, 1990년대 후반에 수집된 물건이 다수 전시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제기를 이용한 전시에 대해서도, 이것을 조상의 위패 쪽에서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절을 올리는 자손은 소위 「전통적인」 제복이 아닌 신사복을 입고 있다.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기제사이다.

舊전시는 양반/평민의 전통, 일찍이 秋葉隆이 지적한 유교문화와 무속문화를 대표하는 「조선사회·문화의 이중성」을 사회 전체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파악하여, 그것을 물건으로써 가시화하고 있었다. 결국 이중구조가 조선사회·문화의 기본적 분석틀을 이룬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각각의 물건은 이중구조로 분류·위치지워지고, 한 종류의 기호로써 취급되었다.

한편, 새로운 전시에 있어서는, 우선 구조 및 시스템에서 물건을 볼 뿐만 아니라, 물건이라는 「유치한 현실주의」에서 물건 그 자체로 오늘날을 전시하려는 자세가 가진 것처럼 생각된다. 新전시에서는 무속, 불교, 유교, 기독교 등으로 코너에 따라 분류는 되고 있다. 그렇지만, 상호영향뿐 아니라 우선 물건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것을 편의적으로 분류했다고 시사하는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무속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불화는 그 가운데 무속신들이 있기 때문에 무속의 물건과 불교의 물건이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불교의 전시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역사적 중층성 및 연속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동시대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물건은 역사적 중층성의 산물로써만 볼게 아니라 우선은 개개의 경력을 갖춘 물건이고, 어떤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적 인과관계로 손쉽게 결부되지 않는 개성적인 물건들은 정합성을 갖춘 구조 및 중층적인 역사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다성성·가변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연간 10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오늘날, 이 문화적 다성성·가변성은 관객에게 있어서는 현실일 것이다. 이 현재에 있어서의 동시대성, 다성성·가변성의 전시는 금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관객에게는 모델화된 구조 및 역사를 전시하는 스타일이 이해하기 쉽다. 이와 같은 의도를 어떻게 전시에 반영시키는가가 금후의 관제일 것이다. 또한, 전시된 물건이 구성하는 것이 연구자 일부가 받아들인 현실이 아니라, 그 물건이 동시대성을 나타낸다는 점에 대한 실증성도 어딘가에서 확보하지 않

発点があることが端的に示されるのは、、入り口近くのコーナーである。そこには、現代の子供文化や生活用品がある。従来の国立民族学博物館の展示においては、伝統と近代ではなく、「プラスチック」以前／以後という基準が採用されていた。しかし、この基準はプラスチックのモノの登場には、どのような社会的・文化的意味があるか、指標としての妥当性についての議論はやや不明瞭なままであった。これに対し新展示では、今日の韓国（日本人も）の生活をめぐるモノが主にプラスチックをはじめとした工業製品で構成されている。

興味深い問題は、生活用品に展示されたモノと展示されないモノの対比であろう。冷蔵庫、炊飯ジャーなどの電化生活用品はおそらく展示されることがない。こうした電化製品、工業製品はむしろ現在の韓国人の日常生活を支える生活用品＝モノである。しかし、これらのモノは「朝鮮（韓国）的」ではないために展示されない。我々の現実の生活世界を構成するモノは標準化・均一化された工業製品に取り囲まれていようとも、「民族学」博物館の展示の際には当該文化に固有なモノを「サルベージ」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あるいは今回の朝鮮半島新展示がそうであるように、キムチ冷蔵庫、子供のハングル学習表、プラスチックのパガジなど、エスニックな記号を付与しやすいモノを選んで展示することになり、必然的に本質主義的立場に立たざるを得ない。当該社会でコカ・コーラがいかに飲まれていても、それを地域や民族の生活を提示する資料として展示することはできない。実際の生活用品の世界規模の標準化・均質化の過程が進行する中で、それぞれの文化に特徴的な（民族的）モノをサルベージし、展示しなければ民族学博物館ではなくなるのである。このことにより当該社会の現実とは異なるイメージを展示が創り出す可能性がある。つまり博物館展示における「民族的」なモノを区別する基準、民族の定義という議論が改めて問い直されることになる。

プラスチック以前のモノを展示するという旧展示の基準には、伝統と近代という二元論的立場に立つ視点がある。しかしこの視点は、プラスチック以前を均質な時間や空間として、通時的変化や歴史性を隠蔽する可能性があった。そして現在の当該文化のあり方と乖離した過去の伝統のイメージを創り出す問題に直面した。この乖離はますます近年大きくなっていたように思われる。これに対して今回の新展示は、同時代的の朝鮮半島の文化の同時代性を展示しようとした試みとして評価できよう。この視点は、伝統と近代を固定した区分とし、相互に相容いれないものとする「誤った本質的な二元化」[Hander & Linnekin 1984＊]を回避するものである。

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新전시에는 현재의 「민족적인」 물건을 둘러싸는 시각이 있다. 현재에 출발점이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입구근처의 코너이다. 그곳에는 현대의 어린이문화 및 생활용품이 있다. 종래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에서는 전통과 근대가 아니라 「플라스틱」 이전/이후라는 기준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물건의 등장에는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있는지, 지표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불명확한 채 이 기준이 채용된 것이다. 이에 비해 新전시에서는 오늘날의 한국(일본인도)의 생활을 둘러싸는 물건이 주로 플라스틱을 시작으로 한 공업제품으로 구성되고 있다.

흥미깊은 문제는, 생활용품에 전시된 물건과 전시되지 않은 물건의 대비일 것이다. 냉장고, 전기밥솥 등의 전기생활용품은 아마 전시된 것이 없다. 이러한 전기제품, 공업제품은 오히려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지탱해준 생활용품=물건이다. 그러나, 이들 물건은 「조선(한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시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현실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물건은 표준화·균일화된 공업제품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민족학」 박물관의 전시 때에는 해당 문화에 고유한 물건을 「구출(salvage)」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은 이번 한반도 전시가 그러한 것처럼, 김치냉장고, 어린이의 한글학습표, 플라스틱 바가지 등 민족 특유의 기호를 부여하기 쉬운 물건을 선택하여 전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본질주의적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회에서 아무리 코카콜카를 마신다고 해도, 그것을 지역 및 민족의 생활을 제시하는 자료로써 전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생활용품의 세계규모의 표준화·균질화 과정이 진행하는 중에, 각각의 문화에 특징적인(민족적) 물건을 구출(salvage)하여 전시하지 않는다면 민족학박물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전시가 해당 사회의 현실과는 상이한 이미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박물관 전시에서의 「민족적」인 물건을 구별하는 기준, 민족의 정의(定義)라는 논의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된다.

플라스틱이전의 물건을 전시한다는 舊전시의 기준에는, 전통과 근대라는 이원론적 입장에 선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플라스틱이전을 균질한 시간 및 공간으로써 통시적 변화 및 역사성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해당 문화의 존재방식과 동떨어진 과거의 전통 이미지를 창출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 동떨어짐은 근래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에 대해 이번의 新전시는 동시대적인 한반도의 문화의 동시대

この二元論の立場によれば、伝統は明確に区分される構成要素の実体として認識される。展示されるモノの選択に際しては、各構成要素における代表性が問われるだけでなく、きわめて「伝統」についての価値観が選択の基準に反映する。「もっとも伝統的」なモノを選ぶという視点は、しばしば、歴史学的な基準ではなく、象徴として「伝統的」な価値をもつか、否かという政治的な議論になりがちである。この問題は、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も模造品の展示をめぐる問題として、韓国人研究者との議論でも見いだすことができた。また朝鮮半島における歴史的重層性を過度に強調することは、他地域の展示とのバランスを崩す。同時に歴史の継続が民族や国家の優位性を証明するというナショナリステックな言説を一方的に支持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民族」博物館がそもそも文化をめぐる表象的行為の場である以上、こうした議論、問題は避けがたいであろう。「現在」を重視した場合にも「固有性」や「民族性」をサルベージ、創造する可能性があり、この議論から免れるわけにはいかない。展示の中でこの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のか、今回の新展示の試みは重要な問題を顕在化させたと言えよう。

一方、今回の新展示は「伝統」や「歴史」を展示することを第１の目的としていない。むしろ今日の朝鮮半島の文化を日本人研究者としての我々がいかに表象するかの問題意識に立つことで、朝鮮半島の「伝統」についての日韓の共通認識を反映する場やせめぎ合いの場を提供する可能性を秘めている。これは忌避すべきことではなく、対話の糸口となると考えるのは楽観的すぎるであろうか。もはや日韓が一方的に相手を表象すればよかった時代は去りつつある。仮に韓国において日本文化を展示する機会があるならば、そこでの問題と今回の国立民族学博物館新展示をめぐる問題をつきあわせると文化人類学、民俗学、文化研究の上で有益な議論を提供するに違いない。そのような可能性をも秘めるという意味で、今回の新展示とこれに続くシンポジウムにおける議論の今後の展開に期待したい。

*Hander, Richard & Linnekin, Jocelyn. Tradition, Genuine or Spurious, Journal of American Forklore, vol.97 pp.273-274, 1984 （岩竹美佳子訳『民俗学の政治性』1996 未来社　125-156頁も参考にした）

성을 전시하려고 한 시도로써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시각은 전통과 근대를 고정시킨 구분으로, 서로를 용인하지 않는 「잘못된 본질적인 이원화」 [Hander & Linnekin 1984*]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 이원론의 입장에 의하면, 전통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성요소의 실체로써 인식된다. 전시될 물건을 선택할 때에는 각 구성요소의 대표성을 물을 뿐 아니라, 「전통」에 대한 가치관이 선택기준에 반영된다. 「더욱 더 전통적인」 물건을 선택한다는 시각은 종종 역사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징으로써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논의가 되는 경향이 짙다. 이 문제는 심포지움에서도 모조품 전시를 둘러싸는 문제로써, 한국인 연구자와의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의 역사적 중층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타지역의 전시와의 균형을 깨뜨린다. 동시에 역사의 계속이 민족 및 국가의 우위성을 증명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언설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될 지도 모른다. 「민족」박물관이 애초부터 문화를 둘러싸는 표상적 행위의 場인 이상, 이러한 논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를 중시한 경우에도 「고유성」 및 「민족성」을 구출(salvage)하여 창조할 가능성이 있고, 이 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전시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번 新전시의 시도는 중요한 문제를 현재화(顯在化)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이번 新전시는 「전통」 및 「역사」의 전시를 제 1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조선반도의 문화를 일본인연구자로서의 우리들이 어떻게 표상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서서, 한반도의 「전통」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통인식을 반영하는 場 및 서로를 원망하는 場을 제공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것은 기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낙관적일까. 어느새 한일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표상해서 좋았던 시대는 가버렸다. 가령 한국에서 일본문호를 전시할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서의 문제와 이번 국립민족학박물관 新전시를 둘러싼 문제를 맞붙이면, 문화인류학, 민속학, 문화연구상에서 유익한 논의를 제공함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가능성도 안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의 新전시와 심포지움의 논의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기대하고 있다.

* Hander, Richard & Linnenkin, Jocelyn. Tradition, Genuine or Spurious, Journal of American Forklore, vol. 97, pp.273-274., 1984(岩竹美佳子역, 『民俗學の政治性』, 1996, 未來社, 125-156페이지도 참고로 했다)